

경북지역 鄉校建築 明倫堂의 開口部 變遷에 관한 연구

— 大廳과 房 사이의 境界壁을 중심으로 —

鄭明燮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金一鎭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머리글

전통건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현존 건축물의 현상을 중심으로 그것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치중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변형된 것을 무시하고 기록년대에 의거하여 현상을 창건 당시의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럴 경우 建築樣式 變遷史의 혼란과 함께 건축양식을 통한 年代推定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증적 현장조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復原的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원적 연구에 의해 건축물의 창건(또는 중건 등)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밝혀내게 된다면 그후의 변형과정도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를 통해 각 시기별 구조 및 형태상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建築物樣式 變遷史의 기초자료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大邱·慶北 지역에 소개한 鄉校建築의 明倫堂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제구성요소 중 開口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범위는 43개 향교 중 창건 또는 중건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거나 변형의 흔적들을 비교적 잘 남기고 있는 19개 향교로 하였으며, 개구부는 명

륜당의 대청과 방 사이 境界壁에 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각 향교 명륜당의 細部樣式¹⁾과 함께 개구부 위치별로 현상 및 변형된 흔적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開口部形式의 변천은 현재의 모습을 건축년대별로 분류하여 종합 비교분석한 후 개구부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II. 平面形式分類 및 考察方法

조사건물의 평면형식은 室 구성에 따라 건물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 우에 방을 둔 兩房式과 한쪽에 방이 있는 偏房式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 이들 두 형식은 퇴청을 건물의 前面에 들인 前退式과 퇴청이 없는 無退式으로 세분된다.

19개 향교 중 禮安·知禮향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兩房式이었다. 兩房式은 前退式(11개 향교)과 無退式(6개 향교)²⁾으로 되어 있으며, 偏房

1) 本稿에서는 건물의 柱頭樣式, 臺工, 窓戶 등의 形態와 주요부재들의 改變 여부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식은 모두 無退式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대상건물별로 분류해 보면 표1과 같다.

구분 No	鄉校名	兩房式		偏房式	
		前退	無退	左退	右退
1	慶州	○			
2	高靈	○			
3	軍威		○		
4	金山		○		
5	比安		○		
6	善山	○			
7	星州	○			
8	廷日	○			
9	英陽		○		
10	永川		○		
11	禮安			○	
12	醴泉		○		
13	蔚珍	○			
14	義城	○			
15	仁同	○			
16	知禮				○
17	眞寶	○			
18	清道	○			
19	玄風	○			
계		11	6	1	1

표1 對象鄉校 平面形式

이상의 평면형식에 준거한 개구부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평면구성에 따른 방 위치와 위치별 柱間³⁾에 따라 基準符號를 부여하였다. 기준부호는 방의 위치에 따라 A(左側房)와 A'(右側房)로 크게 구분하고,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A₁·A'₁(建物 앞쪽 柱間)과 A₂·A'₂(建物 뒤쪽 柱間)로 세분하였다.

2) 英陽鄉校는 現在 無退(右側房)와 前退(左側房)의 混合形式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現場調査를 통해 右側房의 前退를 後代에 들인 것을 推察할 수 있었기 때문에 無退 兩房式으로 간주하였다.

3) 대청과 방사이의 경계벽은 한 間으로 된 延日鄉校를 제외한 모든 향교가 대청에서 바라보아 건물 앞쪽 柱間과 건물 뒤쪽 주간의 두 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기준부호별 개구부형식은 건물의 세부양식과 함께 개구부에 시설된 窓戶形式(種類, 機能)을 중심으로 현상 및 복원도를 작성하여 고찰하였다.

Ⅲ. 開口部形式 考察

고찰 기준에 따라 조사한 각 향교 명륜당의 개구부형식은 개구부의 有無와 창호의 기능 및 형식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네(㉠~㉣)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1. ㉠ 형식

이 형식은 A·A'의 건물 앞쪽 주간(A₁·A'₁)에 창을 달고, 건물 뒤쪽 주간(A₂·A'₂)에 출입구를 설치한 것으로 양방식의 성주, 인동, 영양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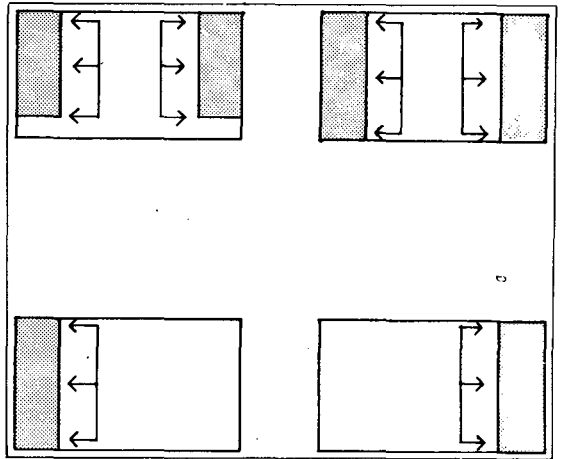


그림1 對象鄉校 明倫堂 平面形式에 따른 符號例示圖



그림2 개구부형식(1) : ㉠ 형식

4) 창호의 기능은 머름·가운데설주의 유무와 바닥면에서 창호 하인방까지의 높이 등에 따른 출입의 難易를 고려하여 窓 또는 門으로 구분하였다.

진보향교와 편방식의 예안, 지예향교가 이에 속한다. 양방식의 좌(A)·우(A') 개구부형식은 영양향교를 제외한 모두가 좌·우동형을 취하면서 대칭으로 되어 있다.

성주향교(創建: 1397년, 重修: 1561년)⁶⁾는 임란의 兵禍를 모면한 건물로 상당히 오래된 세부양식⁷⁾이 부분적으로 존재해 있다. 이것은 후대의 중·보수시 부분적으로는 改變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해온 것임을 시사해 준다. 개구부형식은 건물 앞쪽 구간(A₁·A')에 층⁸⁾이 높은 加地枋을 들이고 가운데 설주를 세운 쌍여닫이 띠살창(세살영쌍창)이 달려 있으며, 건물 뒤쪽 구간(A₂·A')에 피증방을 문하인방으로 한 외여닫이 굽널띠살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다. 이들 개구부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상태를 보면, A₁과 A'에 시설된 창 의 가지방과 A₁의 가운데 설주는 풍화상태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窓戶의 門楣 및 좌·우 문선과 문짝 그리고 A'의 가운데설주⁹⁾는 후대에 와서 改替된 것으로 보인다.

인동향교(移建: 1601년, 1635년, 1988년)¹⁰⁾는 지금의 위치로 移建하기 위한 解體工事와 함께 精

密實測調査¹¹⁾가 이루어진 건물로 古拙한 세부양식¹²⁾의 일부가 잘 남아 있다. 개구부형식은 A와 A' 모두를 복원¹³⁾하여 ㉠형식에 포함시켰다. 그 모습은 성주향교와 거의 같은데, 다만 A₁과 A'에 층이 높은 가지방 대신 창호하인방을 합증방 위에 덧대어 창턱을 높였음이 다를 뿐이다.

예안향교(創建: 1415년, 重建: 1589년, 7회 重·補修)는 部材의 많은 부분이 新材로 교체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양식에서 古格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변형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호의 부재는 풍화상태로 미루어 보아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구부형식은 앞선 시기의 성주향교와는 A₁에 가운데설주가 없고, 다소 늦은 시기의 영양향교와는 A₂의 굽널높이가 다를 뿐 두 향교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비록 건물의 많은 부분이 改變되었지만 A의 개구부는 크게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추정을 할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전통 건축물이 改變될 때 전부가 개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舊制가 존용되면서 점차적으로 변천되기 때문이다.

영양향교(創建: 1683년, 3회 重·補修)는 3間 大廳 御間의 전·후 각 2柱를 제외한 나머지 기둥이 교체된 것으로 보아 대대적인 修理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세부양식이 대부분 후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다만 3間 대청 背面의 각 間 개구부에는 가운데설주를 세웠던 흔적이 있는 옛 창틀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영양향교는 양방식의 他鄕校와 달리 우측 온돌방 앞에만 퇴청을 들인 보기 드문 평명형식을 취하면서 A와 A'의 개구부형식이 非對稱으로 되어 있다. A의 개구부형식은 성주향교의 A와 유사한데, 단지 A₁의 창호에 가운데설주가 없고 A₂의

5) 英陽鄕校의 A'는 A와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復原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6) 여기에 나열한 것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移建은 최종 移建年代이고 重·補修는 最終移建(또는 重建 등)이후의 공사이다.

7) 3間 대청 배면의 각 간과 양측 방 앞의 退廳 前面間에 나 있는 開口部에 17C 이전 건물에서 주로 사용된 창 의 가운데설주 흔이 남아 있다.

8) A₁과 A'의 가지방 층은 260mm 정도이다.

9) “星州鄕校 明倫堂 右側 온돌방의 가운데설주(두께 145mm)는 일반적인 범위에서 동떨어짐으로써 改變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金一鎭, 韓國建築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8, p. 53. -

10) 1988년은 최종 移建年代이고, 1601년(復原形式)과 1635년(復原前形式)은 開口部形式과 관련된 연도이다.

11) 嶺南大學校 建築工學科 建築史 研究室에서 198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精密實測調査하였다.

12) 外柱上의 初翼工은 1600~1700년대 건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5樑架의 童子柱臺工은 浮石寺 無量壽殿과 銀海寺 居祖庵의 것과 유사한 古式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3間 대청 배면의 각 간에 나 있는 개구부에는 고식창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설주 흔이 남아 있다.

13) 郭東曄, 仁同鄕校의 復原에 관한 研究,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8, p. 75.

창호에 성주향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굽널을 들인 점이 다를 뿐이다. 이 A의 개구부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은 풍화정도로 보아 오래된 舊材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A의 개구부형식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의 개구부형식은 A₂에 피중방을 창호 하인방으로 한 쌍여단이 굽널띠살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고, A'₁에는 개구부가 나 있지 않다. A'는 풍화상태로 보아 A보다 오래되지 않은 細長한 부재(인방, 문선, 벽선)들이 정연하지 못한 상태로 결구되어 있는데, 이는 A보다 늦은 시기에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A'는 ⊖형식에 속한다.

지례향교(創建: 1485년, 重建: 1690년, 1회 補修)는 近者에 많이 개변된 右側編方式 건물로 세 부양식에서 古式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개구부형식은 A'₁에 토머름을 들인 쌍여단이 띠살 창이 달려 있고, A₂에 외여단이 굽널띠살 출입문이 벽체의 중앙에서 우측으로 偏在하여 기둥에 접해 있다. 이 형식은 부재의 풍화상태로 미루어 보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년대가 앞선 인동향교의 A'(復原形式)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유사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 차이점은, A'₂의 문이 편재된 것과 A'₁에 인동향교의 함중방과 창하인방을 각기 대신한 토머름과 머름중방을 두고 가운데설주 없이 비교적 키가 큰 창을 설치한 것이 다르다. 그중 A'₂의 출입문은 원래 벽체의 중앙에 있었던 것을 후대에 방의 뒷벽쪽 내부에 벽장을 들이면서 출입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편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지례향교는 건물의 전체적인 변형과 함께 개구부도 개변되었지만 인동향교와 다소간 차이를 보이면서 창과 문으로 구분된 기능만은 같음을 알 수 있다.

진보향교(創建: 1404년, 移建: 1896년)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재들이 오래되지 않았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아니라 세 부양식에서도 古格이 보이지 않고 있어 후대에 部材交替와 함께 많이 변형된 듯하다. 개구부형식은 A₁과 A'₁에 머름을 들인 외여단이 띠살 창이 달려 있으며, A₂와 A'₂에 사분합들여열개 정자살불받기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A와 A'에 달려 있는 창호형식은 ①형식에 속하는 타향교와 비교해 볼 때 창호의 기능만 같을 뿐 형식에 있어서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2. ⊖ 형식

이 형식은 A와 A'의 건물 앞쪽 柱間(A₁·A'₁)과 건물 뒷쪽 柱間(A₂·A'₂) 중 한쪽에만 출입문을 달고, 다른 쪽에는 開口部 없이 心壁을 시설한 것으로, 高령·군위(重建前 形式)·경주·선산·청도·인동(復原前 形式) 향교가 이에 속한다. 이들 출입문을 살펴보면 高령·군위·경주·선산향교는 건물 앞쪽 (A₁·A'₁)에 A·A'와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청도향교는 A₂와 A'₂에, 인동향교¹⁴⁾는 A₁과 A'₁에 각각 쌍여단과 외여단을 설치한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

고령향교(移建: 1702년, 1회 重修)는 후대에 변형이 심하였던 듯 고격으로 보이는 세 부양식을 찾아볼 수 없는 건물이다. 開口部形式은 A₁, A'₁에 피중방을 문하인방으로 한 외여단이 굽널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이 형식은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문얼굴, 문짝, 인방, 주선)와 A₁, A'₁주간의 兩柱 중 건물 앞쪽의 기둥이 新材인 것으로 보아 벽체의 전체적인 개조에 따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위향교(創建: 1407년, 移建: 1701년, 重建: 1988년)는 최근의 중건 工事時 건물의 많은 부분이 개조되면서 대청과 방 사이의 개구부도 改變되었다. 중건 이전의 형식은 ⊖형식에 속하였고, 중건 후의 것은 ⊕형식이었다. 그중 ⊖형식은 A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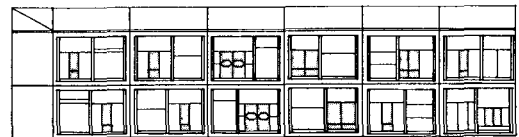


그림3 개구부형식(2) : ⊖ 형식

14) 仁同鄉校의 A'₁은 원래 窓이었던 것을 출입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A₁'에 고령향교와 같은 문얼굴을 한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경주향교(重建: 1614년, 2회 重修)는 여러 차례의 중수로 인해 부재의 많은 부분이 신재로 교체되어 있고 건물의 세부양식에서 고격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3칸 대청배면의 좌·우협간 창틀(쌍여단이 울거미널창)에 가운데설주 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분적으로는 옛 양식이 존재해 있음을 엿보게 한다. 개구부형식은 A₁, A₁'에 피중방을 문하인방으로 한 쌍여단이 띠살불발기 출입문이 달려 있다. 개구부의 부재는 모두 中年에 교체된 신재이며, 또 문의 폭이 타향교에 비해 클 뿐 아니라 문의 가운데에 보기드문 불발기가 들여져 있다.

선산향교(創建: 1396년, 重建: 1624년, 2회 重·補修)는 모든 부재에 진한 가칠단청을 올렸기 때문에 신·구부재의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近者에 교체된 신재임이 뚜렷한 문좌과 翼工樣式¹⁵⁾ 및 3칸 대청 배면 창틀의 가운데설주 홈¹⁶⁾을 통해서 중건 등의 공사시에 변형과 함께 부분적으로 古式의 세부양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구부형식은 A₁, A₁'에 경주·고령향교처럼 쌍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이들 문은 근자에 교체된 것으로 폭이 경주향교처럼 넓다.

청도향교(移建: 1843년, 1회 補修)는 익공과 부재(기둥, 인방, 벽선, 문좌 등)의 일부가 신재로 교체된 것으로 보아 중년에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형된 부분들이 모두 정연한 바 개변 이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구부형식은 A₂, A₂'에 각각 쌍,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는데, 부재들은 모두 교체된 신재이다. 이 형식은 ㉠형식에서 유일하게 건물의 뒷쪽에 출입문을 두고 있다.

인동향교(移建: 1601년, 1635년, 1988년)의 ㉡형식은 復原前形式으로, A₁과 A₁'에는 각기 외여

단이 굽넛띠살 출입문과 쌍머서기정자살 창(出入門을 겸하고 있음)이 달려 있고, A₂와 A₂'에는 心壁이 시설되어 있다.

3. ㉢ 형식

이 형식은 A·A'의 건물 앞쪽 주간(A₁·A₁')과 건물 뒷쪽 주간(A₂·A₂')의 양쪽에 출입문을 시설한 것으로, 의성·현풍·군위(重建後形式)·비안·금산·영천·울진·예천·연일(復原前形式)향교가 이에 속한다. 이들 중 금산향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A·A'가 대청을 취하고 있다.

의성향교(創建: 1394년, 改建: 1921년, 2회 重修)는 근년에 부재의 대부분을 신재로 단장한 건물로 고격을 느낄 수 없는데, 다만 A와 A'의 상부에 놓여 있는 童子柱마루대공¹⁷⁾이 다소 고풍스러울 뿐이다. 개구부형식은 A와 A'의 각 간에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A₁과 A₁'의 개구부가 건물 뒷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는데, 그것은 원래 방이었던 곳에서 퇴청을 들이면서 개변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退廳 전면의 좌·우 기둥과 여모중방에 우메기한 홈흔적(인방과 벽선의 홈)과 昌枋 밑면에 벽을 친 자국이 남아 있고, 온돌방의 고미반자가 퇴청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퇴청부분이 방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성향교는 창건 당시



그림 4 개구부형식 (3) : ㉢ 형식

15) 外部 平柱의 二翼工은 다소 변형된 모습이나, 内部 高柱의 初翼工은 翼工의 뿌리가 仰舌形으로 돌출되면서 활달하게 뺀 쇠서를 가진 1600년대의 모습이다.
16) 金一鎮, 앞책, p. 29.

17) 童子柱의 左·右에 걸침목을 둔 형태는 건축년대가 상당히 앞선 仁同鄕校와 鳳停寺(13~14C)·傳燈寺(1621년)大雄殿의 臺工下部와 유사한 수법이다.

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兩房式에서 前退式으로 개변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풍향교(移建: 1730년, 3회 重修)는 이천시 인근에서 철거된 寺刹의 부재(초석, 기둥 등)들을 많이 이용한 건물로 둔중한 익공양식을 비롯 세부양식에서 오래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개구부형식은 의성향교처럼 각 間에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는데, A₁과 A'₁의 하인방이 ⊖형식의 他郷校와 달리 가지방으로 되어 있다. A₁과 A'₁의 개구부는 문턱을 높이는 가지방을 들인 것으로 보아 ㉠형식인 성주·예안·영양향교의 A₁처럼 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창호의 통례상에 있어서 창에 굽넛의 문짝을 달지 않음과 가지방의 춤¹⁸⁾이 출입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높지 않음을 미루어 볼 때 문으로 간주되지만, 반드시 문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¹⁹⁾

군위향교(創建: 1407년, 移建: 1701년, 重建: 1988년)의 ⊖형식은 중건 후의 모습으로, A₁과 A'₁에 쌍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있고, A₂와 A'₂에 벽체의 중앙에서 건물 앞쪽으로 편재하여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다. 이처럼 군위향교는 최근에 중건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출입문이 시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안향교(移建: 1737년, 6회 重·補修)는 장식성이 강한 조선 후기 형식의 細部樣式(翼工, 波蓮臺工)과 부재상태로 미루어 보아 후대 변화가 많았음을 간파할 수 있는 건물이다. 개구부형식은 A와 A'가 대칭으로 A₁과 A'₁에 쌍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있고, A₂와 A'₂에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다. A와 A'의 개구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은 모두 개체된 신재이다.

금산향교(創建: 1392년, 重建: 1811년, 1회 重修)는 翼工과 波蓮臺工 등이 신재로 改替되어 있

으며, 좌·우 溫突房 前面窓의 문미에는 가운데 설주 홈이 있고 건물 우측면의 상인방에는 연귀 흔적이 남아 있다. 이들을 미루어 보아 후대의 중건시에도 일부 창틀 등의 기존 부재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개구부형식은 A와 A'가 비대칭으로 A₁과 A₂에 외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고, A'₁와 A'₂에 쌍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이처럼 A와 A'가 韓國傳統建築의 입면구성에 있어 절대적 우위성을 갖는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연유는 상부 보의 구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A'의 보는 함보로 A'를 양분하는 곳에 원주를 세워 결합하였기 때문에 A'₁와 A'₂의 주간에 쌍여단이 문을 달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반해 A의 보는 통보로 2본의 圓柱를 세워 지지하였기 때문에 A'와 달리 A가 3분되어 A₁과 A₂의 주간이 좁아짐에 따라 외여단이 문을 시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대칭은 A와 A'벽체의 부재가 개체된 신재인 것으로 보아 후대 개변된 것으로 보인다.

영천향교(創建: 1435년, 重建: 1619년, 6회 重·補修)는 두 번의 화재로 인해 후대 대부분의 부재가 개체되어 세부양식에서 고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兩側 온돌방의 正面과 左側 온돌방의 側面에 古式의 세살영쌍창²⁰⁾이 남아 있다. 이 세살영쌍창은 화재당시 소실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후대 중건시 원래의 모습으로 유일하게 복원된 것이라 생각된다. 개구부형식은 A와 A'의 건물 앞·뒤쪽 주간에 동일한 쌍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이 문은 문짝의 굽넛에 중간선대를 세우고 문짝의 중앙에 불발기를 들였는데, 이는 상당히 후기형식임을 감지할 수 있다.

울진향교(創建: 1484년, 重建: 1979년)는 화려하게 올린 丹青과 장식성이 강한 익공 및 일부의 유리창 등이 후대의 모습임을 느끼게 하는 건물로 近者에 상당히 개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구부형식은 A와 A'의 건물 앞·뒤쪽주간에 각기 쌍여단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18) 星州·英陽·禮安郷校의 가지방춤은 260mm 정도인데 비해 玄風郷校는 110mm정도이다.

19) 여기에서는 출입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창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창이 문으로 이용되는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20) 金一鎭, 앞책, p. 25.

예천향교(創建: 1398년, 重建: 1967년, 3회 重·補修)는 날카롭고 활달하게 뺀 쇠서를 갖춘 익공만이 고격을 보일 뿐 나머지는 근자에 개변된 듯 격이 떨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개구부형식은蔚珍鄕校처럼 A와 A'의 건물 앞·뒤쪽주간에 각기 쌍여닫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연일향교(創建: 1546~1567년, 移建: 1870년, 重修: 1989년)는 장식이 조잡한 物翼工 건물로 근래의 重修 공사시 건물을 부분적으로 改造하고 부재의 표면을 산뜻하게 대패질하였다. 이 중수 공사시 각기 한 칸으로 된 A와 A'의 개구부형식이 개변되었다. 重修以前の 형식은 ⊖형식에 속하였고, 重修後의 것은 ⊕형식이다. 그중 ⊕형식은 A와 A'의 벽체 중앙에 쌍여닫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달려 있다. 이 건물은 대상 향교 중 유일하게 A와 A'의 주간이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건립 당시의 타향교가 모두 두 칸으로 되어 있고, 또 방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당시 造營法式의 통상례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립 이후 건물 전체가 개조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無退兩房式이던 것을 후대 前退兩房式으로 개변한 것이라 推察할 수 있다.

4. ⊕ 형식

이 형식은 A·A' 柱間에 四分間 출입문을 시설한 것으로, 연일향교가 이에 속한다.

연일향교(創建: 1546~1567년, 移建: 1870년, 重修: 1989년)는 ⊕형식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수시 지금의 모습으로 개변된 것이다. 현재의 모습은 A와 A'의 주간에 어느 형식보다 강한 개방성을 띤 사분합여닫이 굽넛띠살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다.

IV. 建築年代의 推定 및 開口部의 變遷

1. 건축년대 추정의 방법과 관점

건축년대는 建築史研究에 있어 필수요건으로

고건축물 現場踏査時 성실하고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축양식의 時期的 特性과 변천을 규명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건축년대 파악은 더욱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고건축의 沿革調査는 조사건물에 대해 기록한 古文書·懸板·記文·上樑文·墨書銘·瓦記銘·面談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 기록내용에 나타나는 건축년대와 관계되는 공사용어를 살펴보면 創建·移建·再建·改建·改築·再築·新築·重創·重建·復舊·增廣·重修·補修·改修·修理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용어를 해석하여 보면 창건을 제외한 앞의 이건~복구는 건물의 이동·소실·퇴락·도괴시에 再建立次元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대공사를 의미하고 있으며, 중수~수리는 건물의 유지·보존을 위한 크고 작은 修繕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년대는 창건과 이건~복구의 연도에 준하여 최후의 공사가 있었던 때를 건축년대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건축물이 시대정신의 發現임을 고려할 때 공사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형이 加해진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구부는 건물의 기능변화와 자연적 훼손에 따라 변형되는 경우가 어느 구성요소보다 많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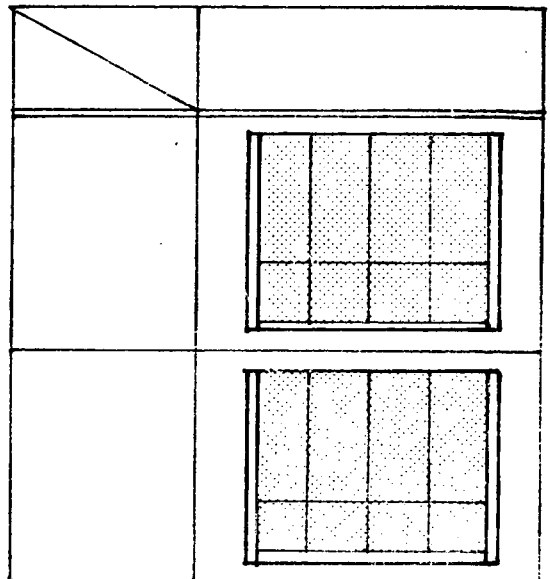


그림5 개구부형식(4) : ⊕ 형식

이와 같이 건축년대를 추정할 경우 舊制의 準用으로 인한 古式의 殘存과 후대 중·보수시의 세부적인 변형 등으로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구체의 준용 범위와 수리공사의 내용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²¹⁾ 최종 이건~복구의 시기를 건축년대로 採用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기록년대를 기초로 한 건축년대 추정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문헌기록에 있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僞善의 기록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중건·중수 등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의 誤記이다. 이처럼 고건축물은 기록의 未備·僞善·誤記·消滅 등으로 인해 절대 건축년대를 규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기록년대와 함께 건물의 세부양식들을 건축년대가 비교적 확실한 기준건물의 양식 및 수법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건축년대로 채용한다면, 그 變數幅을 좁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종 이건~복구년도를 추정 건축년대로 하여 앞장에서 살펴본 건물의 세부양식과 개구부형식을 충실히 검토한 후 개구부의 변천을 고찰하였다.

2. 개구부의 변천과 분석

조사건물의 개구부형식들을 추정 건축년대 順으로 분류한 결과 크게 18C 이전과 18C 이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分布는 表-2와 같다.

1) ㉠形式

이 形式은 18C 以前の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8C 以後의 건물에서는 眞寶鄉校만이 이에 속하였다. 이들 중 星州²²⁾·禮安·仁同²³⁾鄉校는 18C 이전의 건물 중에서 비교적 건축년대가 앞선 것이다. 특히 성주향교는 가장 건축년대가 앞서고 窓에 가운데설주까지 남아 있어 ㉠형식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여진다. 이는 復原된 인동향교의 A₁과 A'₁에 달려 있는 창이 성주

향교와 같은 古式의 세살영쌍창으로 드러남에 있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안과 知禮향교는 A₁과 A'₁의 창틀에 가운데 설주가 없을 뿐 성주·인동·英陽鄉校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은 A₁과 A'₁의 창에 가운데설주가 있는 것이 先形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後形임을

() : 推定建築年代

時期 形式	時 期		
	18C 以前	18C 以後	
開 口 部 形 式	㉠	星洲(重修: 1561) 禮安(重創: 1589) *仁同(移建: 1601) 英陽(창건: 1683) 知禮(重建: 1690)	眞寶(移建: 1896)
	㉡	慶洲(重建: 1614) 善山(重建: 1624) 仁同(移建: 1635)	軍威*(移建: 1701) 高靈(移建: 1702) 淸道(重建: 1843)
	㉢	永川(重建: 1619)	玄風(移建: 1730) 比安(移建: 1737) 金山(重建: 1811) 延日*(移建: 1870) 義域(改建: 1921) 醴泉(重建: 1967) 蔚珍(重創: 1979) 軍威(重建: 1988)
	㉣		延日(重修: 1989)

*仁同: ㉠形式(復原形式), ㉡形式(復原前形式)
軍威: ㉡形式(重建前形式), ㉢形式(重建後形式)
延日: ㉢形式(重修前形式), ㉣形式(重修後形式)

表2 對象鄉校의 時期別 開口部形式 分布

22) 星州鄉校의 건축년대는 丁若鏞의 牧民心書(禮典6조; 孝學)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 黃俊良이 星州 牧使가 되어 文廟를 重修하여 옛 규모를 크게 넓혔다...” (茶山研究會, 譯註 牧民心書IV, 創作과 批評社, 1984, p. 55 · p. 328.)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重修年度는 없지만 황준양이 星州 牧使로 부임한 해(明宗實錄: 1560년 7월)와 공사규모를 고려할 때 1561년 전후로 생각된다. 이 기록은 창건후 壬亂 以前の 유일한 중수 기록이고 임란 때 훼손되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건축년대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3) 仁同鄉校의 ㉠형식은 ㉡형식을 복원한 것으로 ㉡형식의 推定 建築年代(移建: 1635年)보다 앞선 1601년(移建)을 건축년대로 본다.

21) 金一鎭, 앞책, p. 43.

집작할 수 있다. 이상과는 달리 18C 이후의 건물로 ㉠형식에 포함시킨 진보향교는 A₁과 A'₁에 ㉠형식의 특징인 창으로 되어 있지만 18C 이전에서 볼 수 있는 쌍여닫이 窓形式이 아니고 외여닫이 창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형식은 移建 이전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後代 改變時에도 개구부가 창의 기능을 따르고 있는 유일한 예로 여겨진다. 이러한 진보향교의 개구부형식은 建築年代上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형식과도 다른 독자성을 띠고 있어 예외적인 형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형식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A₂와 A'₂에 나 있는 四分開 出入門이 18C 이전에 속하는 형식들의 출입문보다 확장되어 있음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형식은 예외적인 진보향교를 제외한다면, 18C 이전의 건물 중에서 건축년대가 앞서고, 건물의 세부양식에서 고식을 찾아 볼 수 있는 향교들이 취한 형식으로 나머지 세(㉢~㉤)형식보다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2) ㉢형식

이 형식은 18C 이전과 18C 이후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형식에 속하는 것 중 경주·善山·인동(復原前形式)향교는 18C 이전에 많이 보이는 ㉠형식과 같은 연대에 속해 있고, 軍威(重建前形式)·高靈·淸道鄕校는 18C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이중 인동향교는 ㉠형식에서 ㉢형식으로 변천을 보이고 있고, 군위향교는 ㉢형식에서 ㉤형식으로의 변형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 ㉢형식에 속하는 향교의 개구부형식은 18C 이전과 18C 이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과 上記 인동향교와 군위향교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볼 때 18C 이전의 ㉠형식보다는 늦고 18C 이후의 ㉡, ㉤형식보다 빠른 것으로 드러난다.

3) ㉤형식

이 형식은 永川鄕校(18C 以前)를 제외한 모두가 18C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이 ㉤형식은 ㉠, ㉢형식보다 늦은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18C에서 20C 후반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숫적으로도 가장

많다. 이와같은 ㉤형식은 18C 이후 형식 중 가장 보편화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앞의 ㉠, ㉢형식보다 境界壁(대청과 방사이)에 더 많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8C이전의 건축년대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속하게 된 영천향교의 개구부형식은 1900년대 중반 이후²⁴⁾에 변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형식에 속해 있다가 1989년에 ㉤형식으로 다시 개변된 延日鄕校는 또 하나의 변화를 예고해주는 형식이라 볼 수 있겠다.

4) ㉥형식

이 형식은 연일향교(重修後形式)가 유일한 예로서 1989년 重修時에 이루어진 변형이다. 즉 1870년시의 ㉤형식이 1989년도 중수시에 ㉥형식으로 개변된 것이다. 이러한 연일향교 하나만을 통해서 형식의 전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식처럼 경계벽(대청과 방사이)에 사분합 출입문을 설치한 진보향교(移建: 1896年)와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新寧(重建: 1852年), 淸河(重建: 1968年), 龍宮(重修: 1978年)향교 등이 경계벽에서도 사분합 출입문을 설치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건축년대를 보면 모두 ㉤형식보다 다소 늦은 19C 후반 내지 20C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어 ㉤형식 다음에 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식은 앞의 세(㉠~㉢)형식보다 늦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개구부형식 중 가장 강한 開放性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각 형식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 ㉢, ㉤, ㉥순으로 변천된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형식의 성주와 인동(復原形式)향교의 것은 가장 오래된 모습으로 간주되는 바 17C 이전의 형식으로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천은 개구부에 나있던 창을 차츰

24) 永川鄕校는 6·25 당시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대대적인 修理가 있는 건물이다. 이 수리시에 변형된 것 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窓戶의 꾸밈새와 部材狀態로 미루어 보아 動亂 이후에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없었고 대신 출입문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개방성을 띠게 한 대체적인 흐름을 읽게 한다.

지금까지 종합분석한 개구부형식의 변천을 시기별로 系統化하면 그림-6과 같다.

V. 결론

慶北地域의 19個 鄉校 明倫堂의 大廳과 房사이의 境界壁에 나 있는 개구부를 대상으로, 그 형식을 考察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형식은 대부분 18C 이전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한 향교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나타난 형식이다. 이 형식 중 성주, 인동(復原形式) 향교처럼 건물 앞쪽 주간에 세살영쌍창을 설치한 형식은 건축년대와 현존 건물에 남아 있는 고식의 세부양식 등을 통해 볼 때 17C 이전의 형식으로도 올려볼 수 있었다.

2) ㉡형식은 18C 이전과 18C 이후에 걸쳐 고

르게 나타났는데, 18C 이전의 ㉠형식보다 늦고 이후의 ㉢, ㉣형식보다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3) ㉢형식은 18C~20C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이 시기에 보편화된 형식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형식보다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4) ㉣형식은 가장 늦은 20C 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어느 개구부형식보다 강한 개방성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 ㉡, ㉢, ㉣의 순으로 변천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으며, 개구부가 후대로 오면서 점진적으로 개방성을 띠게 되었음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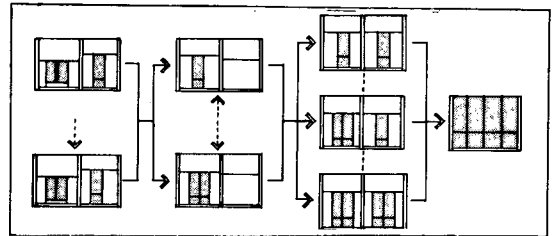


그림6 時期別 開口部形式 變遷

建築沿革調査 史料 및 文獻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대) ○市·君誌 ○儒教事典編纂委員會, 儒教大事典, 博英社, 1990 ○慶北道史
- 輿地圖書(1760년대, 英祖) ○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慶尙北道 1985년 8월) ○各 鄉校 記文 懸板 ○校誌
- 邑誌 ○丁若鏞, 牧民心書 卷二十三 「禮典六條(興學)」 ○文化遺跡總覽 ○嶺南誌

참고문헌

1. 金一鎮, 韓國建築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8.
2. 趙永鏞, 慶北地方 鄉校에 관한 연구,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7.
3. 李大鎮, 鄉校建築 講學空間에 관한 연구,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8.
4. 郭東曄, 仁同鄉校의 復原에 관한 연구,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8.
5. 姜銳碩, 星州鄉校에 관한 復原的 연구,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90.
6.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慶南鄉校地, 大邱: 三光社, 1991.
7. 李達勳, 翼工系 共包의 發生 및 變遷過程研究, 忠南大, 博士學位論文, 1989.
8. 民族文化推進會, 明宗實錄 13卷, 三省印刷社, 1986.
9. 張起仁, 韓國建築大系V(木造), 普成文化社, 1988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Openings in MyungRyun-Dangs of HyangGyo Architecture Located in Kyungbuk Province

— Focused on the partition wall between Daechung and Bang —

Chung, Myung Sup
Kim, Il 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 of openings installed on the partition wall between Daechung and Bang, through the case study on MyungRyunDangs of 19 HangGyos in Kyungbuk province.

The way to carry out this study was to look through existing situations and to find out transformed traces of the openings in terms of their locations on several floor types.

The transformation of the openings was analyzed chronologically into two cases of 'before 18C' and 'after 18C'.

i) Before 18C; the early type had double swing window on the front column spacing and single swing door on the rear, and the later type had swing door on the front column spacing and on openings on the rear.

ii) After 18C; the earliest type was the same as the later type of 'before 18C', the next type had swing doors on both the front and the rear column spacing, and the last type had Sabunhap-swing door on the column spacing.

iii) Through those transformations, the windows gradually replaced by the doors in the openings.